**세계화시대의 역사보기**

**기말 레포트**



**2016722074**

**컴퓨터정보공학과**

**김영태**

**소련은 왜 성공하고 또 왜 실패했는가**

1. **소련의 탄생 배경**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이라고 불린다. 소련은 1922년부터 1991년까지 현재 러시아 국가에 위치해 있던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다.

소련의 탄생은 1917년에 일어났던 러시아 2월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300여년간 이어졌던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로서 1917년 2월에 있었던 러시아 2월 혁명으로 인해 퇴위 하게 된다. 1914년 7월 28일에 발발한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당시 러시아 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된. 당시 러시아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들이 먹을 우유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의 러시아 사회는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경제난을 겪는 동안 러시아의 공장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는 등 민중들의 시위가 격해지곤 했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니콜라이 2세는 군대를 보냈지만 군인들마저 노동자들의 편에 서게 되고 결국 진압은 실패하게 된다. 결국 니콜라이 2세는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임시정부가 설립되게 된다.

그리고 1917년 11월 7일에 레닌의 주도하에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레닌은 당시 러시아의 급진적 공산주의 분파이자 유라시아 북부지역의 공산주의 정당인 볼셰비키를 인솔했던 인물로서 러시아 제국의 혁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을 발전시킨 혁명가인데, 그는 1917년부터 러시아 임시정부 국가원수로 재임하고 이후 소련의 설립까지 6년간 최고 권력자의 자리로 실권한다. 그가 이끈 공산주의 정당 볼셰비키는 적위군을 조직해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 불리는 러시아 제국의 수도 페트로그라드를 장악한다. 이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과 외국 열강은 볼셰비키와 적대하게 된다. 이에 백군과 외국열강 그리고 볼셰비키 사이에서 러시아 내전이 발발하게 된다.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는 러시아 내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어 1922년 12월 30일에 열린 소비에트 대회에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자카프카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연합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성립이 선언되었고, 이렇게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하게 되었다.

1. **소련의 발전과정**

러시아 혁명과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의 러시아 내전 승리로 소련은 탄생하게 되었다. 소련을 이끈 레닌은 1918년에 있었던 암살미수에 의한 후유증과 과로 그리고 여러 질병 등이 겹치면서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 되었고 이러한 레닌의 후계 자리를 두고 트로츠키와 스탈린이 격돌하게 된다. 당시 젊은 나이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스탈린과 적위군을 창설해서 러시아 내전을 승리로 이끈 트로츠키간의 싸움은 결국 스탈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트로츠키는 1927년 국외로 추방당하고 추후 그는 멕시코에서 암살을 당하게 된다.

소련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다.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소련의 경제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계획 경제체제였다. 1928년 스탈린에 의해 계획된 5개년 경제계획이 크게 성공하면서 소련은 큰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1930년대에 발생한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지만 당시 소련은 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38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올라서게 되었다.

사실 소련이 처음부터 강력한 국가였던 것은 아니다. 1928년까지만 해도 소련의 공업 생산량은 미국의 1/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때 당시의 소련은 서구열강들의 눈 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가난한 농업국가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초창기에는 레닌이 소련을 공업국가로 만들어 소련을 발전시키기 위해 신경제 정책을 펼쳐 작은 규모의 사기업과 상업을 인정하는 등의 정책들을 도입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레닌 이후 소련의 실권을 잡은 스탈린은 소련이 서방에 비해 매우 뒤쳐져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의 모든 산업과 경제 활동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소련을 공업국가로 만들어 전체적인 국가의 발전을 꾀했던 스탈린의 노력은 이후 빛을 발하게 된다. 1930년대 미국에서부터 대공황이라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사회를 뒤흔든 대공황사태가 발발했을 때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크게 몰락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 회복에 전념하는 동안 소련은 대공황을 무시하고 크게 성장했다. 스탈린에 의해 통제되고 외부의 여파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당시 소련의 경제 체제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때의 성장으로 소련은 유럽 제1의 공업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때 스탈린의 주도로 인한 초고속 공업화는 소련을 강대한국가로 만들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인권탄압과 희생이 있기도 했다. 당시 초고속 공업화를 위해 농민을 쥐어짜는 등의 탄압이 있기도 했고 정치적으로도 대 숙청을 감행하는 등의 어두운 면도 있었는데, 이러한 어두운 이면이 있음에도 대공황을 큰 피해 없이 넘기고 큰 경제 발전을 이룩한 스탈린의 업적은 무시하지 못할것이다.

소련이 이와 같이 성장하는 동시에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나치가 독일을 이끌고 있었다. 1939년 8월에 소련과 독일은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을 맺고 2차세계대전 초반에는 나치 독일과 폴란드를 양분하고 핀란드를 침공하여 영토의 일부를 할양 받는 등의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다가, 1941년 6월 나치 독일은 독소불가침조약을 파기하게 된다. 이때 독일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전쟁을 ‘대조국전쟁’ 이라 부른다. 전쟁 초반에는 소련이 독일에 밀렸으나 이후의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1945년 5월에 베를린을 함락하는데 성공한다. 소련은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 회복에 전념할 때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또 2차세계대전에서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끊임 없는 발전을 이룩한다.

(여기까지 작성)

2차세계대전에서의 승리로 소련은 이전에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을 전부 영향권으로 집어 삼키게 된다. 대공황으로 인해 쓴맛을 보았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공산주의는 매력적인 이념이었고 또 소련의 강력한 군사력은 주변국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유럽 외에도 북한과 중국, 베트남 역시 공산주의로 갈아타는 등의 성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이 소련의 위성국이 되어감에 따라 소련의 힘은 매우 강해졌고 위기감을 느낀 미국과의 충돌은 냉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게 합니다

1. **소련의 몰락**
2. **소련이 현대사회에 끼친 영향과 주안점**